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2006년 한국 경제성장률 5.0% 달성
- 파운드貨 초강세

## 경영 노트

-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GE

## 사회 트렌드

- '블루슈머'용 상품이 뜬다

## 저널 브리프

- IT산업의 글로벌 맹주를 꿈꾸는 인도

## 洗心錄

- 오늘을 위한 기도

## □ 2006년 한국 경제성장률 5% 달성

- 2006년 한국 경제는 전년에 비해 수출 호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 부문이 개선되어,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005년의 4.0%보다 1.0%p가 확대된 5.0%를 기록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05년 7.0%에서 2006년에 8.3%로 확대되고,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같은 기간 3.0%에서 4.1%로 개선됨
  - 지출 항목별로는 건설투자가 2005년 0.4% 증가에서 2006년에 0.1%의 감소세를 기록했을 뿐, 민간소비(4.2% 증가), 설비투자(7.5% 증가), 재화수출(13.0%) 등 대부분의 항목들이 전년에 비해 호조를 나타냄
  
- 그러나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도 환율 하락, 美 경기 둔화 등으로 하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은 2006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 파운드貨 초강세

- 파운드 대비 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23일에는 1.9813달러까지 오르며 199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최근 런던이 뉴욕을 제치고 세계 금융 중심지로 재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란은행(BOE,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5.25→5.50%)하면서 영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런던 금융시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규제 철폐와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금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임
  - 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영란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파운드화 대비 달러 환율이 2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운드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들은 국제결제 수단으로서 파운드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GE

-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GE는 고부가가치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음
  - 이멜트 회장은 지난 2001년 취임한 이후 고부가가치 사업을 집중 육성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음
- GE는 사업 실적이 부진한 화학 관련 사업에서의 철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 헬스케어 등의 사업 비중을 높여나가기로 함
  - 지난해 3,4분기 이익률이 전년대비 20%나 감소하는 등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플라스틱 등 화학부문 매각을 위해 구매자를 물색하고 있음
  - GE는 앞서 지난해 말 실리콘과 석영 사업을 관장하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부문을 사모펀드인 아폴로 매니지먼트에 매각한 바 있음
  - 한편 향후 10년간 고부가가치 사업인 금융 및 헬스케어 사업 비중을 대폭 늘리고, 종합산업 비중을 낮추는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기로 함

< GE의 사업부문별 비중 >

2005년	비중(%)		2015년	비중(%)
금융	26.7	⇒	금융	40.0
인프라	27.9		헬스케어	30.0
헬스케어	10.1		인프라	20.0
종합산업, 플라스틱(4.4%)포함	21.7		종합산업+엔터테인먼트	10.0
엔터테인먼트	9.8			
기타	3.8			

- 업계의 절대 강자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과 신성장사업의 지속적 발굴 등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음을 시사함
  -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구축이 요구됨
  - 더불어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유망 성장사업에 대한 선별 투자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 '블루슈머'용 상품이 뜬다

- 기업의 마케팅 전쟁 속에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 일명 '블루슈머'(Bluesumer)를 찾아내는 능력이 기업 경쟁력으로 부상함
  - '블루슈머'란 '블루오션'(Blue Ocean, 경쟁자가 없는 시장)과 '소비자'(Consumer)가 합성된 조어임
  - 통계청은 생활시간조사, 사회지표, 경제활동인구 등 국가통계를 분석해 기업들이 올해 주목해야 할 6개 블루슈머와 소구(訴求) 상품을 발표함
- 이동족(Moving Life)
  - 걸기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과 같이 이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DMB TV, PMP, 무선 헤드폰 등이 인기를 얻음
- 무서워하는 여성(Scared Women)
  -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안전 및 호신과 관련된 무인경비 서비스, 디지털 도어록, 호신용 전기충격기 등의 인기가 높아짐
- 20대 아침 사양족(Hungry Morning)
  - 20대 가운데 2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반면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은 오히려 커져 아침식사용 건강음료, 즉석 죽, 컵 스프, 포장용 조각 케이크, 생식용 두부, 떡 등이 호응을 얻고 있음
- 3050 일하는 엄마(Working Mom)
  - 계속 증가하는 30~50대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에듀시터(edu-sitter, 아이 돌보기+교육), 플레이 튜터(play tutor, 아이 돌보기+교육), 로봇 청소기 및 다양한 지능형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피곤한 직장인(Weary Worker)
  - 주5일제 실시로 직장인의 육체적 노동시간은 줄어든 반면 피로는 오히려 증가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차(茶) 전문점, 마사지 숭, 스파, 요가, 댄스학원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살찐 한국인(Heavy Korean)
  - 하루 중 섭취하는 총 열량과 건강과 미(美)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하면서 웰빙형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음

## □ IT산업의 글로벌 맹주를 꿈꾸는 인도\*

- 인도의 IT산업이 기존의 저부가가치와 하청 이미지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고부가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음
  - 기존의 인도 IT기업들은 저임금과 영어가 가능한 인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아웃소싱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었음
  
- 인도 IT산업의 글로벌 공략은 양질의 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 공급 및 외국의 우수 인재 영입과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임
  - (양질의 교육) 7개의 기술전문대학에서 매년 3,500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기업은 자체 교육센터를 통하여 고객사의 수요에 맞춘 고급 인재 양성이 활발함
  - (개방적 인재 활용) 미국의 주요 명문대와 SAP같은 IT기업 출신의 인재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해외시장 공략의 주력으로 활용함
  - (정책적 일관성)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IT 중심도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IT인력들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인건비 급등) 최근 인건비가 너무 치솟아 인도에 진출한 일부 외국기업은 필리핀으로 콜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의 반격) 인도 IT기업의 공세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던 세계적 IT기업인 EDS, IBM 등도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 IT산업의 글로벌 공략 강화는 전 세계 지식산업의 판도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함
  - (기업)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 유지를 위해서는, 원천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 유인이 필요함
  - (정부) 장기적 관점에서의 IT관련 인프라 확충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 글은 『주간조선』(2007.1.2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더러는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짜투리까지도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밖에는 없는 것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사랑의 거울” 앞에 저를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느라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오늘을 묶어 두지 않게 하소서.

몹시 바쁜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비켜서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고독의 층계를 높이 올라 내면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흰옷의 구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이해인 수녀님의 詩)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 탈무드